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이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 결혼, 이혼, 동거, 성의식에 관한 태도를 중심으로

황 현 주¹⁾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가 이혼한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까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경험이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안산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1-3학년 학생 334명에게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은 4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은 고등학생의 동거와 성의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혼과 이혼에 관한 태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의 이혼이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나타내었다. 아울러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청소년 개인이나 당면한 가족문제와 같은 개인적·미시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과 맥락내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어 :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 고등학생의 가치관, 결혼, 이혼, 동거, 성의식

1) 교신저자 : 나사렛대학교, 천안대학교 강사, E-mail : urieunbin@korea.ac.kr

I. 서 론

급증하는 이혼으로 한국사회가 뜨겁다. 그동안 계속 증가하는 이혼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조금씩 나오다가, 2003년도에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결혼대비 이혼율 자료는 한국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통계청은 2002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30만6천6백건의 결혼과 14만5천3백건의 이혼이 이루어짐으로서 이혼율 47.4%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4년도에 이르러 하루 평균 835쌍이 결혼하고 458쌍이 이혼함으로써, 결혼대비 이혼율이 50%(2003년도 기준)를 넘어섰다는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계청의 발표는 아무런 여과 없이 곧바로 대중매체를 통해 “우리나라 이혼율 2쌍 중 1쌍으로 세계 최고 수준”, “OECD국가 중 미국에 이어 이혼율 세계 2위”라는 보도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는 범국가적으로 가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입법화되어졌고, 또한 학계에서는 이혼율과 이혼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로 이어졌다.

이혼율과 이혼에 관한 연구들에는 먼저 통계청에서 사용한 이혼율 산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이혼율 계산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정현숙, 2004; 대법원 법원행정처, 2004; 한성현, 최민자, 이진석, 2000). 이들은 공통적으로 결혼대비 이혼율(한 해의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대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법원 행정처에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지난 1월말 기준으로 11쌍 중 1쌍, 즉 9.3%라고 밝히면서(뉴스매거진, 2004. 6. 23),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혼율 산출에 대한 연구들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50%가 맞는지,

아니면 9.3%가 맞는지에 대한 논쟁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수치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총 이혼건수는 16만 7천 건으로, 이 수치는 하루 평균 458쌍이 이혼함을 의미한다. 이 중 47.7%가 결혼 10년 이내의 이혼이다. 특히 이혼당시 20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68.4%(자녀 2명 34.9%, 1명 28.6%, 3명 이상 4.9%)로, 실제로 이혼에 포함되는 자녀의 수가 해마다 약 13만 명에 이른다. 통계청(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증가율은 2000년 1.7%, 2001년 12.5%, 그리고 2002년 7.6%로 잠시 내려왔다가 2003년 15%를 육박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학교에서도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 우리 주변에서도 이혼한 가정의 자녀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제는 이혼이 결혼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삶의 한 형태로 다가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병리적인 가족문제로 인식되어, 이혼은 문제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며 이혼 자체가 곧 문제행동이기에,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필연적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행동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고 여겨왔다(김순옥, 1998). 특히 서구와 달리 개인이나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보다는 자녀와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중시하는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의 특성 상 이혼은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혼을 바라보고 있는 견해가 거주지역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점차 융통적이고 허용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김숙자, 1998;

김순옥, 1998; 한경혜·이정화, 2002). 그리하여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1991년도 7.1%에 비하여 2000년에는 14.5%(통계청, 2001)로 두 배가 되더니, 2003년에는 18.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4). 오히려 이제는 이혼을 심각한 갈등에 처한 부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마지막 돌파구로 바라봄으로써, 과거에는 외도, 폭행과 같이 결혼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이혼이 허용되었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이해부족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도 이혼이 새로운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이현송, 1999).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반영되어 이혼율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이혼율이 증가되어짐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허용적이 되었는지, 즉 인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이혼율의 증가와 이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이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혼이라는 가족해체로 인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에 초점에 맞추어졌다면, 지금은 이혼에 대한 여러 시각들을 분석하거나(김순옥, 1998; 한경혜, 이정화, 2002), 이혼을 유발시키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살펴보고(곽배희, 2001; 이무영, 이소희, 2003; 이주홍, 2002), 이혼실태와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대책들(김숙자, 1998; 김진섭, 1996; 남은자, 2001; 변화순, 1999; 정문자, 김은연, 1999; 정순희, 문숙재, 최혜경, 1999)을 모색하는 등 다양하게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이혼이 이혼가족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혼이 자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혼과 같은 부부갈등이 부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부문제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에 일치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Hertherington, Stanley-Hagan, & Anderson, 1989). 학업성적 저하, 분노·공격성의 증가, 감정억압, 죄의식, 또래와의 대인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개념, 인지능력의 저하, 비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 92편을 모아 메타분석 한 Amato & Keith(1991)의 연구에서도 이혼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이혼가정의 자녀는 비교집단에 비해 비록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학교성적과 품행, 긍정적 자아개념, 사회심리적 적응, 모자관계, 부자관계 등의 7가지 영역이 모두 낮았다(이훈구, 2004 재인용). 국내에서의 논문들을 분석한 이훈구(2004)의 연구에서도 이혼은 자녀의 자존심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었다.

하지만 흔들리는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냉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해하는 청소년 모두가 이혼가정의 자녀들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의 청소년과 성인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대신 동거와 같은 삶의 양식을 선호하는 데에는 급증하는 이혼율이 미친 영향이 크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결혼율의 저하와 함께 출산율의 저하로도 이어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2002년도 기준)으로 성인남녀가 만나 간신히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이미 결

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이혼에 대한 불안감으로 혼인신고를 뒤로 미루는 풍조가 점차 보편화 되어지고 있다(매일신문 2004. 7. 12). 이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앞으로 자신들이 결혼하였을 때,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대신 나 자신도 언제 이혼할지 모른다는 가족해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혼은 단지 결혼관계와 가족 체계라는 그 가족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 가족이 속한 지역사회 전체의 사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이혼의 영향과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혼 당사자인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만 한정되어 있다(권영미, 1999; 김영희, 김갑숙, 최외선, 1995; 변화순, 1999; 양연순, 1994; 오은순, 1996; 전숙영, 유안진, 1997; 정현숙, 1993; 정현숙, 서동인, 1997 등).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 외에도 다른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친척과 이웃 등 자신의 간접적 생활반경에서 일어난 이혼을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인식, 즉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이 청소년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에 대한 지각과 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 상, 즉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형성된 정체성과 가치관은 이후의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급증하는 이혼에 대해 고민해온 미국의 경우 이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매

년 1억불 이상의 비용을 이혼 예방을 위한 중등학교의 혼전교육이나 부모교육 및 관계기술교육에 할애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청소년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의식이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있어 가족과 학교와 같은 미시체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친구와 이웃과 같은 외체계, 그리고 사회 문화, 관습과 같은 거시체계 등 다양한 수준의 주위환경이 서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생태학적 체계의 본질은 상호작용적이다. Bronfenbrenner는 발달을 항상 변화하는 사람과 변화하는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Shaffer, 2000). 따라서 생태학적 환경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상황이나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초월한 확대된 개념으로, 발달을 연구하는데 있어 개인의 직접적인 환경의 영향과 관계만을 분석하고 개인의 특성에만 초점을 두었던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도록 인간 발달 연구의 지평을 넓혀 주었다(윤종희, 2001).

또한 Bronfenbrenner(1995)는 최근에 와서 기존의 생태학적·환경적인 영향력을 중시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의 능동적인 발달과정과 생물학적 영향력을 첨가함으로써, 이제 그의 이론은 생물생태학적 이론으로 지칭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과 체계들 간의 상호작용도 개인의 발달적 과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최인접 환경인 미시체계만을 인식하는 영유아기와는 달리 형식적·조작적 사고가 가능하여 직접 겪는 경

험 이상으로 사고할 수 있기에, 가족의 친구나 이웃, 대중매체 등의 외체계와 그리고 문화적 가치, 관습과 같은 거시체계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Elder & Caspi, 1988).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의 급증한 이혼율은 이혼 당사자인 부부와 그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친구와 그 가족이 속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다른 특정 발달 시기보다 외체계와 거시체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Bronfenbrenner의 주장을 고려할 때, 비록 자신의 가정과 같은 미시체계에서 부모의 이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과 친구의 부모님과 같은 외체계에서 발생한 이혼이 청소년 개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급증하는 이혼율로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거시체계)까지 변화하고 있는 요즈음 이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거시체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체계 보다 더 안정적이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작용함으로서 비록 간접적이지만 개인의 발달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의 이혼이 이혼가정의 자녀에게 미친 직접적 영향력, 즉 미시체계에서 나타난 이혼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급증한 이혼이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특히 다른 발달 시기보다 외체계와 거시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기에 가정 이외의 주변 환경, 즉 외체계에서 발생한 이혼을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혼노

출경험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웃, 부모의 친구, 친척, 친구부모 등과 같이 외체계 환경에서 발생한 이혼이 청소년의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체계 환경에서 인식한 이혼이 특별히 결혼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이 인식한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결혼과 이혼, 동거, 성의식에 관한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과 결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와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연구대상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이 인식한 이혼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경험이 고등학생들의 결혼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그리고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3곳을 표집 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특정한 한쪽 계층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 계층 분류 시 주요 변인인 주거형태와 주거지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징(N=334)

변 인	내 용	빈도(%)	변 인	내
성 별	남	108(32.3)	종교	가
	여	226(67.7)		친
학 년	1학년	123(36.8)		불
	2학년	109(32.6)		무
	3학년	102(30.5)		
학교성적	상	98(29.3)		자
	중	190(56.9)		판매/사
	하	46(13.8)		기능/수
			부	사무/
	상	19(5.7)	직업	경영

역을 고려하였으며, 고급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 그리고 소형 연립·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 3곳의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가족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가족 내, 즉 미시체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속한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생태학적 관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친척, 부모의 친구, 이웃, 친구부모와 같이 외체계 환경에서에서의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과 결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친척, 부모의 친구, 이웃, 친구부모와 같이 자신의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은 몇 쌍인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외체계 환경에서의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아울러 고등학생의 결혼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성희(2003)와 김주희, 송은일, 강성희(2003), 그리고 양명숙(1996)의 질문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1) 본 연구의 예비 조사 시, 고등학생들의 경우 부모의 수입을 정확하게 모르는 응답자가 많아 본 조사에서는 연구대상 스스로 자신의 사회계층 위치를 평가하는 주관적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해 응답자들 스스로 주관적 평가를 내리도록 한 결과, 중류층에 지나치게 편중된 응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를 통한 사회계층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사회계층에 대한 편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집 시 주거지역과 주거형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졌지만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혀둔다.

결혼에 대한 태도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결혼의 필요성과 의미, 가치관에 대한 질문들이며,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인생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결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에 관한 허용성과 함께 이혼과 이혼자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으로, 총 8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과 이혼자에 대해 개방적이며 유연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거에 대한 태도는 동거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과 허용성, 그리고 결혼 대안으로서의 동거에 대한 태도 등을 질문한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동거에 대해 개방적이며 긍정적이다. 성의식은 결혼 전의 성적 순결과 이성과의 성관계에 대한 허용성을 질문한 4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의식과 낮은 순결의식을 의미한다.

결혼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에 대한 문항들은 모두 “정말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보통이다”(3점), “별로 그렇지 않다”(4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보통이다”의 3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결혼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이혼과 동거에 대해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개방적인 성의식과 낮은 순결의식을 지닌 경향이 높다. 진술문항이 반대로 표현된 부정문항은 역으로 코딩하여 점수화하였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6월 22일과 23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4년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였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350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성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334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 방법들 중 집단 간의 사례수가 달라도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사후중다비교법들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Scheffe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결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들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외체계 환경에서의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을 알아보고자, 고등학생들에게 친척, 부모의 친구, 이웃, 친구부모와 같이 자신의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9.7%(N=166),

「없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50.3%(N=168)를 차지함으로써,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은 상당히 높았다(표 2).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이혼노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질문하자, 친척과 친구 부모, 그리고 이웃사람 순이었다.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이 인식한 이혼 커플(couple)의 수는 많게는 10쌍까지 다양하였다(표 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체계 환경에서 이혼노출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 166명 중 아직까지 1쌍이라는 응답이 97명(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2쌍 39명(11.7%), 3쌍 18명(5.4%), 4쌍 6명(1.8%), 5쌍 3명(0.9%), 6쌍 2명(0.6%), 그리고 10쌍 1명(0.3%)으로 이혼 커플의 수가 많을수록 응답자는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 3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생이 외체계 환경 속에서 인식한 이혼 커플의 수가 '없다'라는 응답이 아직까지는 168명(50.3%)로 가장 높지만, 이와 유사한 절반가량의 학생들 166명(49.7%)이 외체계 환경에서 이혼을 인식하였으며, 이혼한 쌍의 수도 많게는 10쌍까지 아주 높게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는 이혼율을 고등학생도 자신의 외체계 환경에서 밀접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외체계 환경에서의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 (N=334)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있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없다
외체계 환경에서의	49.7%(166명)	50.3%(168명)

표 3.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이 인식한 이혼 커플 수 (N=334)

	없다	1쌍	2쌍	3쌍	4쌍
외체계에서 고등학생이 인식한 이혼 커플 수	168 (50.3%)	97 (29.3%)	39 (11.7%)	18 (5.4%)	6 (1.8%)
	있다 166(49.7%)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고등학생의 성별($t=4.46, p<.000$)과 아버지의 직업($F=2.94,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종교와 가정의 주관적 경제적 수준, 성적, 종교와 같은 변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 중에서 아버지의 직업변인을 집단 간 사례수가 달라도 검증이 가능한 Scheffe방법으로 다시 사후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들이 외체계 환경에서 지각한 이혼 인식의 정도가 남학생이 지각한 이혼보다 더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에서는 노동/자영/서비스직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지각한 이혼이 다른 직업을 가진 아버지의 자녀 보다 이혼율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결혼과 이혼, 성의식, 그리고 동거에 관한 태도

고등학생들의 결혼 태도 점수는 평균 3.96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은 결혼을 인생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결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반면에 이혼 태도 점수는 평균 3.61로 이혼에 대해서도 허용적이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결혼을 중요한 인생의 과정으로

표 4. 고등학생의 결혼과 이혼, 성의식, 동거에 관한 태도

	사례수	** $p<.001$ 평균	표준편차
결 혼 관	334	3.96	.60
이 혼 관	334	3.61	.53
성 의 식	334	3.46	2.02
동 거 관	334	2.32	1.76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
여기면서 동시에 이혼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허용적이었다(표 4).

성의식의 경우 3.46으로 성의식 역시 비교적 개방적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의식의 경우 사랑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사랑을 전제로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동거는 2.32로 가장 낮게 나타나 아직까지 고등학생들은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이혼이나 성의식만큼 개방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5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결혼관과 이혼관의 상관계수는 -.29로, 그리고 성의식과 동거관의 상관계수는 .23으로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이 결혼을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여길수록 이혼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으며, 성의식이 개방적일수록 동거에도 개방적임을 알 수 있다.

표 5 고등학생의 결혼, 이혼, 동거, 그리고 성의식 태도와의 상관관계

	결혼관	이혼관	동거관
결혼관			
이혼관	-.29**		
동거관	-.02	.04	
성의식	-.02	.08	.23**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Schetté
집단 없다	168	4.04		
집단 1쌍	97	3.93	3.41*	이혼노출경험無*2쌍이상
집단 이상	69	3.83		($p<.05$)
집단 없다	168	3.16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 경험
집단 1쌍	97	3.22	4.21*	이혼노출경험無*2쌍이상
집단 이상	69	3.39		($p<.05$)
집단 없다	168	2.39		
집단 1쌍	97	2.27	.94	
집단 이상	69	2.21		
집단 없다	168	3.48		
집단 1쌍	97	3.40	.34	
집단 이상	69	3.50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결혼, 이혼, 동거, 그리고 성의식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결혼관은 성별($t=3.71$, $p<.000$)과 아버지의 직업($F=3.92$, $p<.00$)에서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혼과 동거, 성의식에 있어서는 성별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에 종교나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 성적, 종교 등과 같은 변인들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결혼관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 중에서는 전문직 자녀 보다 사무직 자녀들의 결혼관이 더 보수적이고 결혼을 다른 가치들 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또한 이혼과 동거, 그리고 성의식에서는 모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체계 환경에서의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과 결혼, 이혼, 동거, 그리고 성의식 태도와의 관계

외체계 환경에서의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과 고등학생의 결혼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사례수를 고려하여 이혼노출 경험이 있는 집단을 외체계 환경에서의 노출경험이 1쌍인 집단과 2쌍 이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혼노출 경험이 고등학생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65

통계처리 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나타나 있듯이 동거관과 성의식에서는 외체계 환경에서 이혼노출 경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는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이혼노출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분석 결과 모두 외체계 환경에서 이혼노출 경험이 없는 집단과 2쌍 이상의 경험이 있는 집단 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외체계 환경 내에서 이혼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결혼관은 이혼한 사람이 2쌍 이상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보다 좀 더 결혼을 삶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이혼관에 있어서는 결혼관과 달리 외체계 환경에서 이혼한 사람이 2쌍 이상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보다 이혼에 있어 좀 더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우리에게 생태학적 체계이론으로 잘 알려진 Bronfenbrenner(1986)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체계 등의 5가지 체계로 구분하여 인간의 발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의 발달 연구가 개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환경인 미시체계에서만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겹겹의 구조로 체계화함으로써, 인간발달에 가족과 학교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이상의 상호작용적이며 호혜적인 구조를 제시하여 주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혼이 결혼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삶의 한 형태로 다가와 우리 주변에서도 이혼한 가정의 자녀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한 가족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속한 사회 전체에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의 이혼이 이혼가정의 자녀에게 미친 직접적 영향력, 즉 미시체계 내에서의 영향력과 상호작용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급증한 이혼이 일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자신의 가정과 같이 직접적 환경인 미시체계에서 부모의 이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과 친구의 부모님과 같은 외체계에서 발생한 이혼은 청소년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특히 거시체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체계 보다 더 안정적이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작용함으로써 비록 간접적이지만 개인의 발달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급증하는 이혼율로 가족과 결혼에 대한 가치관(거시체계)까지 변화하고 있는 요즈음 이 영향력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이웃, 부모의 친구, 친척, 친구부모 등과 같이 청소년의 간접적 환경인 외체계 환경에서 발생한 이혼은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이혼노출경험이 청소년의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외체계에서의 이혼노출경험이 특별히 결혼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 등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 중 외체계 환경에서 이혼노출을 인식한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49.7%(N=166), 그리고 ‘없다’에 50.3%(N=168)이 응답함으로써, 고등학생의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경험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응답 외에 1쌍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29.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외체계에서 이혼한 사람이 2쌍 이상이라는 응답도 20%가 넘고, 심지어 10쌍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있어,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나날이 증가하는 외체계 내에서의 이혼을 증가를 인식할 수 있었다.

둘째, 고등학생들의 결혼과 이혼, 성의식, 동거에 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 고등학생들은 비교적 결혼을 중요한 인생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이혼과 성의식에 있어서도 개방적이고 허용적이었지만, 이에 비해 혼전동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과 이혼, 성의식, 동거에 관한 태도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고 결혼을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여길수록 이혼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았으며, 성의식이 개방적일수록 동거에도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의식의 경우 사랑이 없는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사랑을 전제로 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개방적이었으며,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 보다 남성에게 보다 많은

성적 자유를 허용하는 이중적 기준에 의해 남성보다 여성보다 성행동과 성태도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더 허용적이라고 주장한 연구들(김영옥, 1983;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이인숙, 1994)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우리나라 미혼 대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10여 년 전의 연구들로 오늘날 청소년의 성태도와 가치관과는 다르다. 오늘날 성에 대한 의식은 남녀 평등주의 가치관과 상업적 성문화, 그리고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급속한 해체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미혼남녀, 특히 여성에게 지배적이었던 순결의식의 경우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대체로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우세하였다(고정자, 1983; 공미혜, 1993; 박순희, 함귀옥, 1986; 박희성 등, 1995; 이정숙, 1985).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순결에 대한 의식 자체가 희박해졌고, 이에 대한 성차도 나타나지 않았다(김경신, 김오남, 윤상희, 1997). 한편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성태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성보다는 남성이 개방적이었지만, 그 차이는 근소하게 나타났다(이정연, 2001). 또한 서구의 경우, 60년대 이후부터는 혼전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감소하여 성에 대한 남녀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Bell & Coughy, 1980; King et al., 1977; Small & Luster, 1994).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거와 성의식을 살핀 본 연구결과에서 과거와 달리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가치관이 더 개방적으로 나타난 것은 혼전 성에 대한 이중기준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이혼노

출경험과 그리고 결혼, 이혼, 동거, 성의식 태도와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외체계 환경 내에서 이혼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이혼한 사람이 2쌍 이상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결혼을 삶에 있어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반면에 이혼에 대해서는 그리 허용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거와 성의식에서는 외체계 환경 내에서의 이혼노출경험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고등학생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비록 자신의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인 외체계 환경에서의 이혼노출경험에 따라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개인에게 미치는 간접적이면서도 다양한 환경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입증하였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마다 이혼율이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과 안산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체 모집단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먼저 밝혀둔다. 추후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제 이혼은 개인적인 사생활 차원에서 벗어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난 또 하나의 가족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절반가량이 자신의 주변에 이혼한 커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최근에 들어와 이혼의 영향을 무조건 부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방적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의 맥락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이무영, 이소희, 2003)가 있지만,

이는 이혼 발생에 대한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로 이혼이 미친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혼가정 내에서의 부부, 자녀와 같이 미시체계 환경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외체계 환경에서의 고등학생들의 이혼노출경험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그리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반면에 이혼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용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미시체계 환경뿐만 아니라 외체계와 거시체계와 같은 다차원적인 환경들 간의 상호연계적인 연구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실제로 이혼이 세대간에 걸쳐 대물림 되었다는 연구결과들(Glenn & Kramer, 1987; Keith & Finlay, 1988; Pope & Mueller, 1976)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혼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어짐을 입증한다. 따라서 최근에 공포되어진 건강가정기본법과 이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한 대처라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사적인 영역의 가정문제로 다루어진 이혼이 이제는 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가정의 건강성 유지와 함께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다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혼이 이혼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력을 발달 단계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속한 다양한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이혼이 이혼 가정의 자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과 달리 청소년은 이혼의 원인과 책임을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이혼에 따른 여러 문제들과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혼을 가족해체와 같은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혼에 대한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 전숙영과 유안진(1997)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19-20세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이혼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달리 대학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질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단 연구결과들(Clifford & Clark, 1995; Evans & Bloom, 1996; Robinson et al., 1995)도 있다. 이처럼 이혼은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차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 환경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와 같이 개인이 속한 환경과 상호작용과정의 차이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성이나 발달과 같은 생물학적 차이만이 고려되어졌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혼가정의 자녀와 일반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체계 환경에서 고등학생의 이혼노출경험 유무와 이혼노출경험의 양에 따른 분석만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이혼노출경험의 질적 특성에 따른 분석(예: 친구부모, 이웃사람, 친척, 연예인, 교사..등)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혼율의 증가는 당분간 하나의 흐름으로 계속 지속되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이혼을 일탈로 규정하여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며 병리적 문제로 보았던 과거의 일방적인 입장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포기

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혼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결혼생활에서 또 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중숙, 1998). 이와 관련하여 장휘숙(1998)은 이혼이 세대 간에 걸쳐 대물림되는 원인으로 이혼한 부모의 청소년 자녀들은 결혼생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고,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적절한 역할모델이 결여되었으며, 이혼을 결혼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이혼의 영향력은 이혼 가정의 청소년 자녀 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형성된 정체성과 가치관은 이후의 발달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가족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도 자신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할 때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행복한 결혼에 대한 청소년의 자신감 결여가 오늘날 급증하는 이혼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황현주, 2004).

따라서 이제는 결혼한 부부나 성인남녀를 위주로 실시되어 왔던 기존의 건강가족 프로그램이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 집단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청소년 개인이나 이혼과 같이 당면한 가족문제 중심의 유기체와 미시체계 내에서 만의 제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더 큰 체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 후 이혼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부모요인과 아동요인 외에도 사회적인 지지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위의 친구들과 이웃이 얼마나 긍정적,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가가 이혼부부 뿐만 아니라 이혼자녀의 적응에 절대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채규만, 1998). 따라서 이혼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와 상담과 같이 개인적이며 미시체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혼과 같은 가족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며 개방적인 태도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결혼한 성인들의 이혼 실태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이혼 자녀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제시하여 줌으로써, 이혼 가정에 대하여 비난이나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개방적이며 수용적인 태도와 함께 이혼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날 청소년들은 가족을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도, 자신이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할 때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낮은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역할훈련과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정자 (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89-106.

- 공미혜 (1993). 은폐된 성, 과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 4, 27-47.
- 곽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권영미 (1999).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경신, 김오남, 윤상희 (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 김남숙 (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숙자 (1998). 한국의 이혼실태 - 최근 10년간의 이혼실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4, 93-117.
- 김순옥 (1998). 이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시각정립을 위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지 1, 147-166.
- 김영옥 (1983) 혼전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 대학생과 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 김갑숙, 최외선 (1995). 편모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4), 211-228.
- 김주희, 송은일, 강성희 (2003). 성 태도·성 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남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1(1), 111-124.
- 김진섭 (1996). 사회변동과 이혼을 추이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련 (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남은자 (2001). 우리나라 이혼의 양상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희, 함귀옥 (1986). 남녀 대학생들의 데이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상명여대, 가정교육학회 논문집, 20-28.
- 박희성, 이진숙, 박초아, 정민자 (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변화순 (1999).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양연순 (1994).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및 성격특성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은순 (1996).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종희 (2001). 가정복지의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9(8), 93-105.
- 은기수 (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학회 전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무영, 이소희 (2003).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2), 39-61.
- 이인숙 (1994). 일부 대학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숙 (1985). 여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 한국생활과학연구, 3, 367-383.
- 이정연 (2001).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의식 및 대인관계 간의 상관연구. 강원대학교

-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재경 (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가족문화, 12(2), 81-98.
- 이중숙 (1998). 이혼정자녀의 적응에 대한 심리 사회적, 발달적 이해. 인간발달연구, 5(1), 161-184.
- 이주홍 (2002).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 관한 연구 - 1997년 이후 구조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송 (1999). 주관적 이혼사유의 변화 - 법원 자료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1(2), 73-98.
- 이혜수 (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훈구 (2004).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개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47-53.
- 장휘숙 (1998). 토론: 이혼가정 자녀의 적응에 대한 사회심리적, 발달적 이해. 인간발달연구, 5(1), 187-189.
- 전숙영, 유안진 (1997). 이혼과 재혼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지각.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 22, 55-64.
- 정문자, 김은연 (1999).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탐색.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3, 108-119.
- 정순희, 문숙재, 최혜경 (1999). 이혼 편모가족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 실태. 가족과 문화, 11(1), 103-132.
- 정옥분 (2004). 전생애 발달의 이론. 학지사
- 정현숙 (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정현숙 (2004). “결혼 전 교육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1.
- 정현숙 · 서동인 (1997). 편모가족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가족자원 및 심리적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5.
- 채규만 (1998).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치료적 접근 방법. 인간발달연구, 5(1), 190-206.
- 통계청 (2001). 2000년 혼인 · 이혼 통계결과.
- 통계청 (2003). 2002년 혼인 · 이혼 통계결과.
- 통계청 (2004). 2003년 혼인 · 이혼 통계결과.
- 한경혜, 이정화 (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3.
- 한성현, 최민자, 이진석 (2000). 우리나라 여성 이혼율의 최근 변화추세-인구동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5(1), 1-10.
- 황현주 (200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족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인간발달연구, 11(3), 63-82.
- 뉴스매거진 (2004). 6월 23일자 기사.
- 매일신문 (2004). 7월 12일자 기사.
- Bell, R. R., & Coughy, K. (1980). Premarital sexual experiences among college females in 1958, 1968, and 1978. *Family Relations*, 29, 353-357.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Bronfenbrenner, U. (1995). The bioecological model from a life course perspective. In P. H. Elder & K. Luscher (Eds.), *Examining lives in context*. Washington, DC: American

- Psychological Association.
- Clifford, T., & Clark, R. (1995). Family climate, family structure and self-esteem in college female: The physical vs. psychological wholeness divorce debate revisited.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3), 97-111.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lder, G. H., & Caspi, A. (1988).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An Emerging perspective on the life course. In N. Bolger, A. Caspi, G. Downey, & M. Moorehouse(Eds.), *Persons in context: Developmental proces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 J. J., & Bloom, B. L. (1996). Effects of parental divorce among college undergraduat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6(1), 69-91.
- Glenn, N. D., & Kramer, K. B. (1987). The marriage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4), 811-825.
- Hetherington, E. M., Stanley-Hagan, M., & Anderson, E. R. (1989). Marital transitions: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2), 303-312.
- Hines, A. M. (1997). Divorce-related transitions, adolescent development, and the role of parent-child rel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 215-221.
- Keith, V. M., & Finlay, B. (1988).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timing, and likelihood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797-809.
- King, K., Balswick, J. O., & Robinson, I. E. (1977). The continuing premarital sexual revolution among college fem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455-459.
- Pope, H., & Mueller, C. W. (1976).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Comparisons by race and sex.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2(1), 49-66.
- Robinson, L. C., Garthoeffner, J. L., & Henry, C. S. (1995). Family structur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quality in young adult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3), 23-43.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CA: Wadsworth.
- Small, S., & Luster, T. (1994). Adolescent sexual activity: An ecological, risk-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728-735.
- Weiner, J., Harlow, L., Adams, J., & Grebstein, L. (1995).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from families of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3), 75-95.

1차 원고접수 : 2005. 3. 30.

수정원고접수 : 2005. 5. 30.

최종게재결정 : 2005. 6. 4.

The Effect of the Divorce Experience in Exosystem Environment on Values of High School Student: Centered on Values of Marriage, Divorce, Cohabitation, and Sexual Attitude

Hyunjoo Hwa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Recently there has been a steady increase in divorce rate among the Korean married,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attitudes towards divorce of adolescents changed as a consequ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divorce on adolescents in exosystem environment.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334 respondents who high school students resided in Seoul and Ansan. Statistical method for the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t-test, ANOVA, Sheffe's post hoc comparison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Results are as follow: 1) The divorce experience in exosystem environment was considerably high(49.7%). 2) Th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of marriage and divorce. It's mean that divorce is not a singular life event; instead, it is a social matter of concern. So, it needed strong family programs for adolescent which is emphasized multiple levels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interactions in several contexts or systems.

Key words : divorce experience in exosystem environment, values of marriage, divorce, cohabitation, sexual attitude